

# 함께 뛰자 세계로!... 전국체전 오늘 개막



제 94회 전국 체육대회가 1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다.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 식전행사(격동 천지가 울리다) 예행연습에서 인천의 비상을 상징하는 미디어 크래프트(Media craft)가 떠오르고 있다 /인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등 17개 시·도 대표 3만명 참가 열전 돌입 도마 양학선·양궁 기보배·펜싱 이우리 등 금빛 기대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열전의 막을 올린다. 올해로 94회째를 맞는 체전은 18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펼쳐진다. 개회식은 18일 오후 5시10분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의 역동성을 자랑하는 주제를 담은 각종 퍼포먼스로 함께 상대하게 치러진다.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라

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과 재외동포 등 3만여 명이 참가한다. 광주는 43개 종목에 선수 968명과 임원 259명, 전남은 46개 종목에 선수 1238명과 임원 425명이 출전해 열전을 펼친다. <국내 정상급 선수 대거 출전=이번 체전 전체종목은 스포츠 클라이밍과 댄스 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정식종

목 44개와 시범종목 2개(택견·수상스키)를 더해 46개 종목이다. 이번 체전은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릴 장소에서 리허설처럼 치러진다. 내년에 아시아 무대를 빛낼 양학선(한국체대·기계체조)과 기보배(광주시청·양궁), 펜싱 이우리(전남도청)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대거 출전한다. 도마스타 양학선(광주)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새 필승기 '양학선'을 체전에서 선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다. 올림픽 여자 양궁 2관왕 기보배(광주)도 금빛 과녁을 겨냥한다. 광주는 박태경(광주시청·110m 허들), 김덕현(···멀리뛰기), 이성(···높이뛰기) 등 육상을 비롯해 수영 김지현(하이코리아·베영 50m), 레슬링 정영호(남구청·자유형 66kg급), 태권도 김유진(조선대·-74kg급), 우수광푸 장용호(광주시체육회·태권권), 권수영 김태균(광주체육회·호흡장영 100m) 등이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역시 육상 백승호(삼성전자, 5000·1만m), 원만던지기 김민(목포시청), 수영 박선관(한국체대, 평영 100·200m), 사이클 나주시청 단체 스프린트, 조정 고예령·신지혜

(장성 문항고·무타페어), 불링 최복음(광양 시청·마스터즈), 요트 김대영·윤현호(여수 시청·국제 470급), 근대5종 최호진(전남도청) 등의 우승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색 참가자 화제=이 밖에도 쌍둥이인 소프트볼 설기은·설다운(광주 명진고 3년) 자매와 태권도 고호재·고혁재(전남체고 2년) 형제, 사격 고은·고은석(전남체고 3년) 남매를 비롯해 부부, 부자, 부녀간 등 이색 출전자들이 눈길을 끈다. 전남산악연맹 장만선·조수경 부부는 스포츠 클라이밍(난이도)과 일반 등산(동호인 종목)에 출전한다. 우수광푸 장동석 전부는 아들 용호와 부자간에 지도자와 선수로 각각 나선다.

이번 대회에서 육상 박태경은 5연패, 수영 김지현은 4연패, 도마 양학선은 3연패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태연 광주선수단 총감독(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경이력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훈련에 임해 왔다.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광주체육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박내영 전남선수단 총감독(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쏟아부었던 열정이 한치의 후회없는 경기력 발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체전에서 광주는 종합성적 13위(금38, 은 37, 동 54)를, 전남은 12위(금 39, 은 49, 동 57)를 각각 차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다저스 WS행 드라마 쓰나

<월드시리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5차전

세인트루이스에 6대 4 승·2승3패

커쇼 6차전 승리란 류현진 최종 등판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에서 버펄로에 몰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역전극의 희망을 키웠다.

다저스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NLCS 5차전에서 선발 잭 그레인키의 호투와 타선의 활력 4방을 앞세워 6-4로 이겼다. 다저스는 이번 시리즈에서 잭 그레인키·클레이턴 커쇼 '원투 펀치'를 내세우고도 세인트루이스 원정 1~2차전을 내쳤다.

홈으로 돌아와 류현진을 앞세워 3차전을 잡았지만 전날 4차전을 내주면서 버펄로 끝에 몰렸다. 그러나 이날 승리와 함께 2승 3패로 추격에 성공하며 역전의 희망을 품게 됐다.

다비전시리즈에서 매 경기 홈런포를 평평 터뜨렸던 다저스 방망이가 챔피언십시리즈의 침묵을 깨고 다시 폭발했다.

2회말 애드리언 곤살레스, 야시엘 푸이그, 후안 우리베, 잭 그레인키의 안타를 엮어 2득점 해 예열을 마쳤다. 3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애드리언 곤살레스가 세인트루이스 선발 조 클리의 투심패스트볼을 받아쳐 오른쪽 스탠드 중단에 꽂히는 침지막한 홈런포를 터뜨렸다.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칼 크로퍼드(왼쪽)가 16일(현지시간) 홈구장에서 벌어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승제) 5차전에서 5회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동료 핸리 리미레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다저스는 이날 홈런 4방을 터뜨리며 6-4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꺾고 2승3패로 쏫이 역전의 희망을 품게 됐다. /연합뉴스

5회에는 칼 크로퍼드가 오른쪽 펜스를 넘겨 1점을 더했다. 7회에는 A.J.엘리스까지 왼쪽 스탠드 한가운데 박히는 1점 홈런을 때려 '대포 행진'에 동참했다.

8회 곤살레스가 다시 한 번 우월 1점 홈런으로 장타 쇼의 대미를 장식하며 세인트루이스의 백기를 받아냈다.

19일 벌어지는 6차전에서 에이스 커쇼가 다시 홈런극 승리를 따낸다면 다저스는 20일 7차전에서 다시 류현진의 어깨에 기대를 걸 수 있다.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어쩔 수

없이 지난해 NLCS의 악몽을 되새기게 됐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맞붙은 세인트루이스는 3승 1패로 앞서던 상황에서 내리 세 경기를 내줘 월드시리즈 진출이 좌절된 바 있다.

한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4차전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보스턴을 7-3으로 제압했다. ALCS는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5차전부터 원정에서 다시 시작한다. /연합뉴스

# 새출발 KIA, 인사가 만사인데... 코치진 인선 잠음

## 특&Talk

2013시즌은 KIA에게는 지우고 싶은 역사다.

위기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선동열 감독은 지도자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고, 톱권 투자를 했던 구단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느라 벼어리 냉가슴을 앓았다. 방향을 잃은 선수들의 상실감도 컸다. 어느 해보다 무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던 선수들은 점점 공격 본능을 잃어가면서 수천 이하의 플레이로 팬들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혔다.

이렇다할 소득없이 숙제와 상처만 남은 2013시즌. 떠난 사람이 생겼고, 패장 선 감독은 고개를 숙였다. 구단도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홈페이지에 '반성문'까지 올렸다.

KIA는 새출발을 선언했다. 13일 마무리 훈련이 시작됐고, 17일에는 2014시즌 코칭스태프 명단이 발표됐다.

공석이 된 수석코치 자리는 한대화 2군 총괄코치의 차지가 됐고, 김정수·이대진(투수) 이명수·홍세완(타격) 백인호·김실(수비) 김종국(좌전·주루) 김지훈(배터리) 하나마스(체력) 코치가 1군을 맡게 됐다.

2군은 김용달 총괄코치를 필두로 신동수(투수) 김태홍(수비) 김창희(좌전·주루) 정희열(배터리) 김성현(체력), 3군은 홍우태(투수) 박재용(타격) 한희수(수비) 박현희(재활) 코치로 구성됐다.

## 선수단·팬들에 신뢰 잃은

## 일방적인 불통 인사 선임

## 팬들은 벌써 불안한 시선

이대진 코치가 친정으로 돌아왔고, 김실·박재용·한희수 코치가 새 식구가 됐다. 그러나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읊소했던 구단의 선택에 팬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공교롭게도 추락을 거듭하던 시즌 중반에 돌던 소문이 현실이 되면서 주변의 시선이 끈질기게 쏠렸다. 화합이 중요했던 후반기, 선수단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차기' 수석코치와 2군 총괄코치의 이름이 나왔다. 구단 안팎이 시끄럽자 이름이 오르내리던 프런트 고위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뒤숭숭했던 시즌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꾸려진 2014시즌 체제, 구단과 코칭스태프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구단은 진지하게 내부 성찰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과정이 없는 겉치레 뿐인 새출발은 의미가 없다.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시즌이 문제가 아니라 암흑기로 가느냐마느냐의 중요할 기로다.

코칭스태프도 새로 임무를 부여받았다 고 해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

진 것은 아니다. 코칭스태프의 목소리가 컸지만 선수들의 전력을 제대로 끌어내는데 실패했고, 일방적인 지도 방식과 리더십 탓에 선수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뛰어나고 싶은 그라운드들을 만들고 프로다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내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자제로 선수들을 끌어안고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강압이 아닌 자율의 무대를 만들어야 하지만, 구단·코칭 스태프 내부가 시골시골하면서 이번 추락사태 수습과정에서 선수들은 배제된 모양새다. 위기 탈출의 중심은 선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성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주체다.

새 출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기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간의 불통과 비슷하게 반복된 실패를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다. 베껴거렸던 한해, 사실 가장 상처를 받은 이들은 팬이다. 팬들에게 야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일부고 자존심이다. 팬들은 더위와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관중석을 지키며 KIA를 외치고 박수를 보냈다. 프로 스포츠팀 존재의 이유는 팬이다.

팬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야구는 없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발돋움에 떨어진 불에 전전긍긍하는 구단과 코칭스태프의 모습을 보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팬들이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